



안녕하세요. 종신서원 준비를 하고 있는 전지영 수녀입니다. 저는 2010년 3월 1일 입회, 2014년 2월 24일 첫서원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에 종신서원을 하게 됩니다. 미국 모원체험을 간다고 생각하니 저의 짧은 영어가 걱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관구 메리 헬렌 수녀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수녀님께서 1964년 한국에 오셔서 12년간 계셨다는 것을 알고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1960년대 이 땅에 처음 뿌리 내리신 수녀님과 내가 대화를 하다니... 계속 거슬러 올라가보니 마더씨튼과 내가, 더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가톨릭 재단의 대학에 입학한 후, 친구들의 권유로 21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던 제가 수도자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사회복지를 공부한 저는 수녀원에 입회하여,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사랑의 일터와 방과후 돌봄을 하는 마가렛 공부방에서 사도직을 하였습니다. 지적장애 친구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인간의 순수한 모습을 잘 간직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들이 어두운 세상을 맑게 정화하는 천사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서원 후 4년간 마가렛공부방에서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깊이 관계 맺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통해, 참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조금씩 경험하였지요.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본당 사도직을 하였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신자들을 만나, 그분들의 삶을 조금

이나마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본당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고 나누며 서로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주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도삶에서 주어지는 어려움과 도전, 기쁨과 의미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랑의 씨튼 수녀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Hello! I'm Sr. Jeon, Ji Young. I am preparing for perpetual vows.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on March 1, 2010 and professed first vows on February 24, 2014. If the plan goes as scheduled, I will profess perpetual vows next February. When I heard I would go to the Mother House through the opportunity of a final profession preparation pilgrimage, I began to worry about my short English. So I started practicing my English conversation with Sr. Mary Helen O'Donnell. Talking with her, I was impressed to know that she came to Korea in 1964 and stayed here for twelve years. To speak with one among the first pioneer sisters who come to Korea in the 1960s was to experience how I am connected with Mother Seton and Jesus in the sense of a spiritual

heritage bond when I turn back the hands of time.

When I was an undergraduate student at a university under a Catholic corporation, I was baptized at the age of twenty-one. At that time, not knowing God and having no interest in religion at all, I could not imagine that I would become a religious. Because of my



educational background of Social Welfare, I was missioned to work at the Shelter of Love (we don't work here anymore. A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mentally challenged).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whom I met there showed themselves as they are to others and also accepted others as they are without giving any harm or threat to

others. Looking at them, I could think that they might be the angels who purify this dark world through their innocence. I also took care of the children at Margaret House (the afterschool study house for poor children).

After first vows, I learned how to relate and love others by spending time for four years with children who have one parent, live with grandparents, and have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s. I also experienced that it is a big love to show endurance, trust, and wait for others in interaction with these children.



I worked as a parish sister from February 2018 through July 2020. At several parishes, I met different age groups, from children to the elderly. When some difficulties happen in my ministries, I shared these with the sister whom I work with, and it was a meaningful chance to know the power of community when we live as a community with love and support on each other.

I am learning and finding meaning,

challenges, and joys of religious life. And I also am grateful to God that He(She) called me to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to live as His (Her) instrument.

